

정부, 5년내 수소·전기차 37만대 늘린다

전국 24곳에 수소차 AS센터...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조성 광주 추경 100대분 집행·충전기 593기 추가...선도도시 관심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을 계기로 광주시의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 육성에 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광주시가 '친환경 자동차 선도도시'를 표방해온 만큼 정부 발표를 계기로 적극적 투자나 차별화된 지원책을 마련, 정책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해 광주에 수소차 100대 넘게 달린다=정부가 지난 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를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기로 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에 적극 나선다는 게 골자다.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전기차·수소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차,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차와 대형버스 위주로 보급한다는 방침으로, 수소차는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유지한다. 정부는 당장,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추경으로 확보한 수소차 구입 보조금 112억원(500대)을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경우 수소차 100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창원(100대)과 함께 울산(200대) 다음으로 많아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광주시는 현대기아차의 수소연료 전지전기차 넥쏘에 보조금 1000만원을 책정하는가 하면, 국내 최초로 수소차 카 셰어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소차 선도도시 조성에 공을 들여왔다.

정부는 또 광주 2곳을 비롯, 전국 24곳에 수소차 AS센터를 운영하는 등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광주는 이미 진곡·동곡에 2곳의 수소충전소가 설치된 상태로, 광주시는 올해까지 첨단산단, 송정역 등 3곳에 충전소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형 수소버스를 2022년까지 1000대 보급기로 하고 내년에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도 늘려=정부는 또 오는 2022년까지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500~1800기의 급속충전기를 보급하고 완속 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광주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충전 인프라 645기가 구축된 상태로, 올해 593기가 추가로 조성되면 모두 1238기의 충전 시설이 갖춰진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차 625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올해 전기차 536대(승용 517대, 초소형 19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다.

하지만 입주민 반대에 부딪혀 아파트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하는 공동주택이 적지 않아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전남도 비스해 지난해까지 1576대의 전기차가 등록됐지만 충전소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목포는 전기차가 51대 보급됐지만 충전기는 29대에 불과하고 여수는 71대가 보급된 데 비해 충전소는 58곳에 불과하다. 영광도 64대가 보급된 데 비해 충전소는 40곳뿐이다. 영광도 290대의 전기차가 보급된 반면, 충전소는 민간이 설치한 개인 충전소 245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공공 충전소는 7곳이 전부다.

이 때문에 정부의 충전기 보급 계획이 지역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지역 경제계에서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친환경차 선도도시'를 표방한 것에 맞춰 정책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세무서-평촌마을 자매결연
광주세무서(시장 전태호)는 지난 8일 무등산 평촌명품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을 위한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광주세무서는 마을주민과 영농조합법인 관련 세무관련 애로사항을 듣고 컨설팅 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세무서 제공>

한전, 국민 의견 전력 서비스 반영

12월까지 'KEPCO 온라인 국민소통 패널단' 모집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은 국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고객 의견을 수렴해 전력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해 'KEPCO 온라인 국민소통 패널단'을 모집한다.

패널단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고 객의견 수렴이 필요한 한전의 각종 전력 서비스 및 제도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응답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처음 모집하는 패널단은 전력서비스에 관심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 참여가 가능한 일반국민

(만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600명을 모집하며, 희망지는 응모기간 8일~27일까지 한전 홈페이지와 사이버지점 등을 통해 지원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패널단 활동 종료 시에는 일정 수준의 활동을 한 패널들에게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활동 우수자에게는 에너지신문사 등 현장견학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전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반영해 서비스를 더욱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재호 기자 lion@

운전자가 보증수리 기간 연장 현대차 '보증 연장상품' 출시

운전자가 일정한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고 보증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현대차 보증 연장 상품'이 출시됐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출고 1년 이내 개인 고객 대상으로 기존 제공되는 보증기간에 추가로 '2년·4만km' 또는 '3년·6만km'의 기간을 연장해주는 '보증 연장 상품'을 출시, 고객 확보에 들어갔다. 제네시스나 포터, 택시-리스-렌터카, 상용 차량(버스-트럭 등)은 제외되며 유형에 따라 ▲차체 및 일반부품 보증 연장 ▲엔진 및 동력전달 부품 보증 연장 등 2가지 상품으로 운영되며, 2년·4만km 또는 3년·6만km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



광주신세계 심폐소생술 교육
(주)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10일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대비해 전 직원 사원을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가 진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광주신세계 제공>

올 경제 성장 전망 2.8% 유지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민간소비 올리고 설비·건설 투자 하향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유지했다.

연구원은 10일 '2018년 한국 경제 성장 전망' 보고서에서 "2018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 전망치(3월)인 2.8%를 다시 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전망치는 정부, 한국은행, 국제

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이상 3.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2.9%)보다 낮고 한국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상 2.8%)과 같은 수준이다.

최근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1년여 동안 하락하는 점, 산업생산이 재고투

자와 기존 건설투자 물량에 의존하며 취약하게 진행되는 점, 고용이 부진한 점에 비춰 현재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평가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3월 전망(2.6%)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둔화 따른 고용 여건 악화,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3월 0.9%에서 이번엔 0.6%로 낮춰 잡았다. 건설수주와 같은 건설 경기 선행지표 부진이 지속하고 하반기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해서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3.9%로 3개월 전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 기계 수주와 같은 선행지표들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끌 어온 반도체 투자 증가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한국 자영업자 수 OECD 3위

인구순위 세계 27위 대비 과다...연금 등 대책 필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위 수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1분기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감한 배경 중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가 꼽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과다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미국, 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한국의 인구수가 약 5000만명으로 세계 27위에 그치는 것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의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 수준이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의 자영업자 수가 52만7000명으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지만, 전체 순위는 21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 로도복권 (제810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차	
5	10 13 21 39 43	11	
등위		당첨금(원)	당첨치수
1	6개 숫자 일치	2,231,598,047	8
2	5개 숫자+ 보너스숫자 일치	46,491,626	64
3	5개 숫자 일치	1,449,325	2,053
4	4개 숫자 일치	50,000	100,608
5	3개 숫자 일치	5,000	1,672,013

양우내안 아파트

백운광장역 상가 분양

양우내안에 주상복합 상가

6월 15일 내정가 공개입찰

상가 전용 주차장 100여대 이상 확보!

지하철 역세권 스트리트몰이 투자대세!

백운광장 200M 역세권 스트리트 상가

1522-9477

oticon PEOPLE FIRST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험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험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험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험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